

〈연구노트〉

‘변곡점’ 위의 ‘3.5세대’, 동남아 교육 환경을 말하다*

이 창 규** · 정 유 경***

I. 들어가며

1970년대 말까지 ‘황무지’였던 ‘동남아 지역연구’는 1990년 이후 주제와 사례의 측면에서 ‘다각적 확산’을 보여주었다. 제1세대 연구자들의 ‘선구적 인식과 소망’을 밑거름으로 제2세대의 ‘연구의 조직과 발전’을 거쳐, 제3세대를 통하며 꾸준히 경주되어온 노력들 중 하나는,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었다(전제성 2006). 특히 대학원생 조직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힘쓰고, 보다

* 변곡점(變曲點, point of inflection)은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이며, 이 점을 경계로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된다. 한 지역연구자가 ‘탄생’되는 도정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여러 ‘변곡점’ 중의 ‘하나’가 ‘대학원 과정’일 것이다. 우리는 이 변곡점에 서 있는 여러 대학원생의 입장과 위치들이 일종의 전환점(turning point)이라는 점에서 ‘변곡점’의 은유를 사용했다. 더 나아가, 학회지 창간 15주년을 기념하고 그 간의 연구를 회고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열리는 이번 한국동남아학회 2007년 추계 학술대회가 또 하나의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이 되기를 바라는 대학원생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3.5 세대라는 구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이 ‘3세대’도, 그렇다고 ‘4세대’도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임시방편’과 ‘교육지책’으로 지금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3.5세대’로 부르고자 한다. 추후에 보다 발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과정 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과정 재학

구체적으로는 ‘연구회’를 조직해 후원금과 더불어 세미나 활성을 유도해 왔다는 점에서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동남아’에 대한 낭만적 아마추어리즘을 지닌 학부생의 치기를 ‘지역(전문)연구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토대들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고, 이끌어 주었다.

한국의 지역연구에 관한 한 연구에서 “진정한 지역연구자란 특정 학문분과가 요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분석능력과 전공지역 또는 국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현지조사 연구능력을 겸비한 자”이며 따라서 “지역 연구자는 인문, 사회과학자로서의 전문적 소양,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체류 및 조사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신윤희·이성형 1996: 159). 우리는 이 정의가 지역 연구자를 정의하는 기본 관점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한 지역 연구자가 ‘탄생’하기 위해 겪는 일련의 도정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동남아’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지금의 교육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부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동남아 교육을 받고, 그 후 각자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각각의 변곡점을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동남아 교육 환경에 대한 제언’이나 ‘동남아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란 다소 거창한 ‘목소리 내기’라기보다는 ‘동남아’를 머리에 품고 사는 대학원생이 느끼는 동남아 교육 환경에 대한 중얼거림들(murmurings)을 좀 더 객관화된 자료들과 설문 결과 그리고 심층면접으로 ‘들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그 동안 대학원생들의 ‘술자리에서의 푸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분과별,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조건과 한계’들을 한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II. 연구조사방법

우리 연구의 분석의 대상은, 한국동남아연구소에 소속된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했다.¹⁾ 35명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부였으며, 이중 박사수료 7명, 박사과정 4명, 석사 수료(및 취득) 5명,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12명이었다. 한국동남아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http://www.kiseas.org/>) 연구회원 30명과 현재 회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5명(연구모임에서는 3회 이상 세미나 출석 시 연구회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정회원 인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2007년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물론 이 글이 “한국의 동남아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연구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이 조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동남아 교육과정은 무엇이나, 어떤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동남아 교육과정의 ‘대상과 범주의 문제’와, 한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동남아 교육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평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연구회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연구대상’의 선택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리는, 현재 연구회원에 속해 있는 대학원생들이 실제, 한국의 대학원 과정 중, 동남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분과 학문 학생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다는 점, 연구 회원들이 대개, 한국

1) 2007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총 30명이다. 이중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4명이며, 연구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비활동 중인 회원의 경우는 (박사과정 중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 회원, 취업이나 개인적인 휴식 등으로 인해 ‘휴지기’인 연구 회원들) 16명이다. 현재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선주에 따르면, 공식적인 모임횟수는 월 1회, 여름 겨울 방학 각 2달을 제외한, 1년 총 8회 연구 세미나를 열고 있고, 세미나 주제는 연구회원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세미나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2007년 10월 9일 이메일 인터뷰). 2008년부터는 이창규가 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 7월 현재 연구회원은 총 42명으로 늘었다.

동남아 연구소에 회원으로 소속된 선생님들의 추천과 소개로 연구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로 ‘탄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을 한국동남아연구소에 소속된 ‘연구회원’ 그리고 그들이 속한 ‘대학원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모임이 서울 한국동남아연구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는 점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지방에 있거나, 현재 현지조사나 유학 등의 이유로 ‘비활동’, ‘휴지기’에 있는 연구회원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더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고, 설문과 심층면접의 과정에서도 더 신경을 썼다. 덧붙여 모든 조사대상의 요구를 반영해, 인용되는 모든 인터뷰 및 의견은 무기명 표기됨을 밝힌다.

조사 방법은, 크게 설문지 조사와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설문지는 총 45문항으로 대학원 과정 내/외의 동남아 교육환경과, 유학을 포함한 향후 미래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 했다. 설문대상자에게는 설문 내용에 따라 복수응답을 허용했고 45문항 중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3문항은 주관식으로 질문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했다. 설문지 조사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노정하는 여러 한계들을 보완하며, 대학원생들의 생생히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심층면접도 동시에 진행했다.²⁾ 심층면접에는 크게 한 차례의 집단 면담(group interview)과 국제지역대학원(서울대, 한국외대)과 지역협동과정(연세대), 일반대학원(서울대, 연세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유학 중인 연구회원에서 각각 석사, 박사 과정 생 8명에게 ‘이메일’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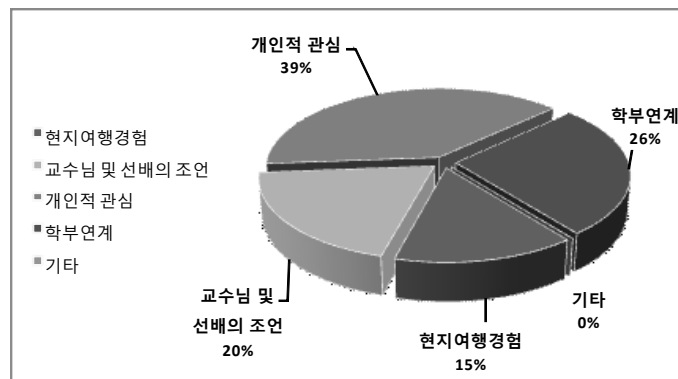
2) 설문조사지는 2007년 9월 19일에 발송되어, 1주일간 28명의 연구회원으로부터 설문지 답변을 받았다.

하거나 ‘직접 발로 뛰며’ 개별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를 수행했다.³⁾

Ⅲ. 국내 동남아교육환경

우리는 우선 대학원생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남아 지역 연구에 입문하게 되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들이 동남아 지역 연구를 접하고, 시작하게 되는 경로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계기들도 중층적이었다.

<표 1> 동남아 지역연구 학습계기



가장 많은 설문응답을 보인 ‘개인적 관심’의 경우, 동남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다양한 동기들이 조사되었고, 몇 개의 선택지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문과정에서

3) 이 집단면담은 2007년 7월 22일 한국동남아연구소에서 총 8명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참석으로 이뤄졌다.

간략한 서술을 부탁했다. 그 ‘개인적 관심’ 중 몇 개의 대표적인 답변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베트남 관계가 한국-중국 관계와 아주 유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남아 지역 연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분과 학문 연계, 심화)

저는 예술사회학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대학원 진학 이후 동남아 지역연구로 연계 시킨 경우인데요, 무엇보다도 서양과 동북아 중심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어요 (관심 주제 연계, 심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특히 베트남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과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개척자의 정신이 주는 쾌감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글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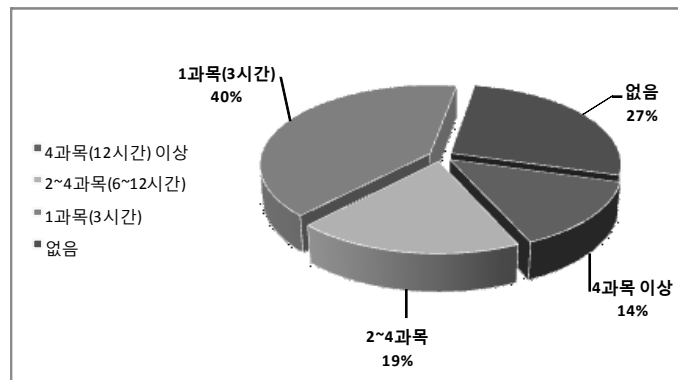
태국문화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있었어요 태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욕구가 대학원 동남아 지역학 분과로 진학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지적, 지리적 호기심)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보니 동남아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거주경험)

대학원생이 입을 모아 토로하는 동남아 수업에 대한 불만은 소속 학과 내 개설 과목수가 적다는 점과 수업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무엇보다도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수업에 대한 대학원생의 아쉬움이 서로 달랐다. 지역대학원과 국제대학원 같은 ‘지역학’이라는 특수목적의 전문대학원과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같은 일반분과 학문의 ‘일반대학원’ 교육 환경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현지 언어와 지역 특수사례의 중점적

연구를 목적으로 지역연구 수업이 개설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보편·일반 이론 수업이 다수이고, 코스웍 과정에서 동남아 관련 수업이 하나의 ‘선택과목’이나 ‘비교’에 기반을 둔 방식의 수업이 개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대학원 특성에 따른 차이는 후에 소개되는 동남아 교육수업에 대해 가지는 대학원생들의 목소리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표 2> 지역연구 수업 개설 과목 수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개설과목수가 2~4과목 이상인 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경제’ 분과 같은 특정 분야의 수업개설을 위한 적절한 교수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역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학 대학원생의 경우, 수업 내용면에 있어서 분과 학문의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지역학적인 실제 사례연구가 동시에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반면에, 수업 개설 과목 수에서 한 과목(41%), 또는 아예 개설이 되지 않는다(27%)고 응답한 대학원생의 소속 대학원의 경우, 정규수업을 통한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이 저조하고, 수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특히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수업이 석사 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존재하더라도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경우였기 때문이었다.

동남아 지역연구 수업의 제한된 주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논문작성 과정이나 현지조사 실시를 위해 사전 자료조사를 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기존의 동남아 연구가 정치학 중심의 연구이고 사회문화나 경제 분과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학습자로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못하고 이들 분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논문지도를 해줄 적절한 교수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차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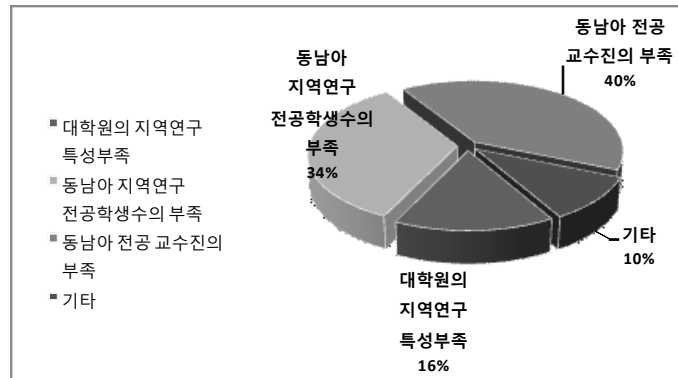
동남아 연구 방법론 수업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과목의 개설이 어렵다면 지역학 연구 방법론 수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지역학 연구 방법론 서적들이 너무 개론 중심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2007년 9월 16일 이메일 인터뷰)

동남아 개별 국가에 관한 수업이나 타 지역과의 협력 상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상호 협력에 대한 수업이 부진했던 것 같고 또한 ASEAN 후발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브루나이, 싱가포르에 관한 내용이 수업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이메일 인터뷰)

저는 동남아 경제에 관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싶었는데요, 지역 경제학을 지도해주실 적합한 교수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동남아 경제를 다루는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도, 모셔올 교수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참 난감했어요. (2007년 7월 22일 집단면담)

그러면,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학습하는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설문에 응한 대학원생들은 소속 대학원 내 개설된 수업수의 부족원인을, 타 지역연구 전공자에 비해 부족한 동남아 지역연구 대학원생(33%)과 동남아 전공 교수진의 부족(39%)을 주요 이유를 꼽고 있다. 이러한 지역연구 수업부족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과연 단순히 학생 수 확보와 교수진 구성 가운데 ‘무엇이 수업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이분법적 문제로 파악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질문을 연장해, 대학원의 구조적 한계에 초점을 맞춘 설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표 3> 대학원의 구조적 한계



우리는 다시, 심층면접의 과정에서 복수응답을 허용하지 않고 ‘학생 수 확보’와 ‘교수진 부족’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겠느냐는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대학원생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수 확보와 교원확충의 문제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두 분류항이 서로 연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대학원

생이 생각하는 대학원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면접 과정에서 지역연구 수업 부족의 원인으로 '교원확보 문제'에 방점을 찍은 대학원생들은 대학원과 정부 등의 '정책적 의지'로 동남아 관련 수업의 주제와 개설 과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반면에 '학생 수 부족'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구조 또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와 더불어 수업의 다양성 문제나, 대학원의 지역연구 '학제적' 특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대학원 지역연구에 대한 문제는 협동과정이나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성찰적 비판도 있었다.

학과 특성상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과 학문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것을 하나의 논문으로 담아내기는 힘들어요. 딱히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논문을 쓰려니 한 분과학문으로서 정체성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2007년 10월 6일 심층면접)

부족한 동남아 교육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이 찾아 나선 학제적 연구나 협동과정은 논문을 준비하는 석사과정생이 분과 학문 간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는 데에 적잖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는데 이는 '동남아 관련 수업'이라는 제목을 통해 찾아간 타 학과 수업을 통해, 연구 주제를 심화 시켰다기보다는 '학제 간 장벽만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자조 섞인 진술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분과를 넘어선 대화와 세미나는 사고와 관점의 외연을 넓히고, 분과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난점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주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육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여러 영성한 틈새들을 매워줄 세련된 방식의 미장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특히 현지 언어를 학과 커리큘럼에서 따로 배우지 못하는 일반대학

원 생들이나—이와는 대조적으로—이론과 방법론의 부재를 떠안고 가는 ‘언어 중심’ 교육의 대학원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높은 기회비용 및 추가 비용을, 연구자가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대학원생의 적극성의 반증이나 자족적 문제 해결 능력의 영역으로 여기며, 대학원생 ‘개인 차원’의 숙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좋은 논문과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이 동남아 연구를 살찌우게 하는 기본 조건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읽고, 확장해나갈 (예비) 연구자들의 육성은 동남아 연구의 지속과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영양 공급’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은 ‘법칙 정립’과 ‘개별 기술’, ‘사회과학’과 ‘인문학’, ‘이론 및 방법론’과 ‘현지 언어 능력’의 상호교호와 생산적 교환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대화와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 시도로 이어져야 한다. 질름발이가 아닌 가장 튼실한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은 윗물이 쉬어야 그것을 받아 머리와 몸을 살찌우는 아랫물의 피라미드(대학원생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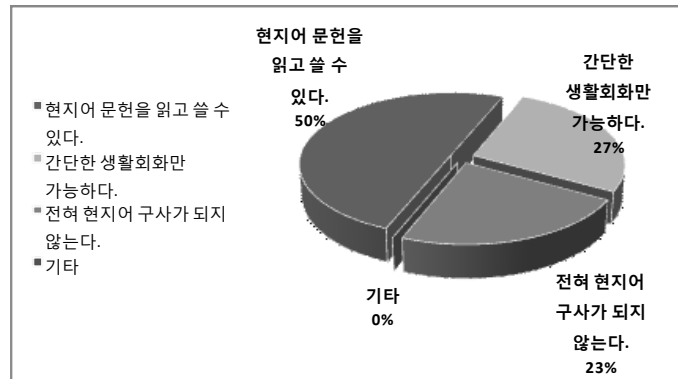
대학원 수업의 여러 제반 조건과 외부 지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국 지역연구 전공자 혹은 일본 지역연구 전공자에 비해 수적으로 ‘소수’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학교 차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체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지원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연구와 연관된 학회나 연구소 및 외부기관의 상대적인 지원의 면에서도 다른 지역연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대학원생들의 평가도 있었다.

우리는 설문과 심층면접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동남아 관련 수업 중에 좋았다고 생각되는 수업은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히 수업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대학원생들에 만족을 주었던 수업은 이른바 ‘맞춤형 수업’이었다. 5명 이하의 수강인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와 높은 관련성을 갖고, 주제에 관련

해 선행연구를 개관할 수 있었던 수업 유형들에서 대학원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런 맞춤형 수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수업모델이 유학중인 박사과정 연구회원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2학기 이상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첫 학기에는 관련 동남아 연구 분야의 다양한 저술과 서적들을 접하고, 다음 학기에는 첫 학기의 학습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관심 주제에 기반 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대학원 소속 대학원생들 역시 ‘이론’을 근거로 ‘사례연구’를 진행한 수업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는데, 각 대학원의 동남아 정치론, 동남아 지역연구 방법론, 동남아 문화인류학, 비교정치 수업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었다.

우리의 설문조사에 응한 35명의 대학원생들은 그 동기가 개인적인 관심이든, 현지경험에서 나온 것이든, 혹은 학부전공의 연계를 통한 것이든, 모두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런 목적의식은 자연히 그들의 현지 언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과 연결된다. 지역 연구자에게 있어 현지어 문헌을 이용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은 여전히 ‘필수 도구’들이자 더 나아가 하나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강한 목적의식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학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언어를 강조하는 학부과정을 제외하고는 그리 높은 수준의 현지 언어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응답자 중 오직 한명만이 영어 구사 능력만으로도 현지 연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반면, 95%가 현지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고 학습의향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그 '학습의향'이 실천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했다.

<표 4> 동남아 관심지역 현지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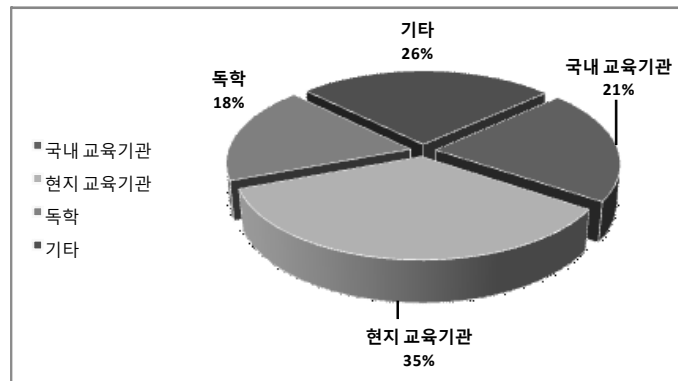


일단 교육과정에서의 현지어 학습 문제를 보자면, 대학원생들의 높은 현지어 학습 욕구에 비해 동남아 현지어 교육 경로가 다양하지 않고, 교육 과정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학원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어, 일본어 등과 달리 대중적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아 지역 언어의 경우,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다음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동남아 현지어를 습득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며, 오히려 동남아 현지 교육기관(35%)을 통한 현지어 습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타(26%)와 독학(18%)의 경우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학원 정규과정에 현지어 학습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한국외대 지역대학원과 입학조건이 현지어 능력 구비인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분과 학문을 다루는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은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현지 언어 접근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내 ‘교육기관 내(內)’가 아닌 ‘개인교습’ 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 현지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기 중 현지 언어 학습 병행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독학이나 개인 교습, 스터디를 통한 경우는, 몇 년의 기간을 현지어 학습에 투자하지만 여러 사정 등으로 중간에 중단할 경우가 많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표 5> 동남아 현지어 교육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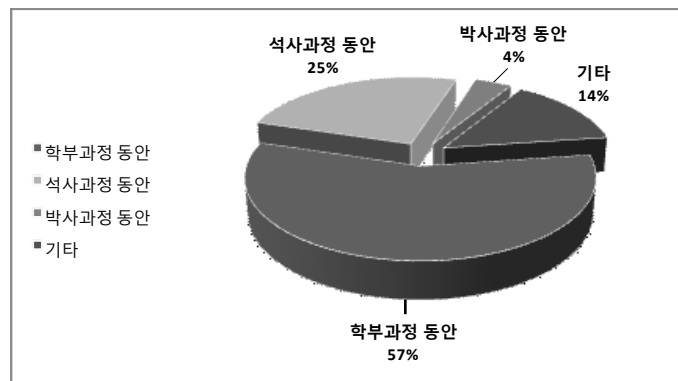


미국 대학원의 경우, 동남아 지역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직된 언어 학교에서 현지어 교육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비록 대학원의 정규과목으로 현지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학 등의 특정기간에 한시적인 '언어특강 개설' 등으로 대학원생들의 강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다. 이러한 방학 중 언어특강 같은 경우, 현지어 교육에 적합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강사영입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주위의 현지어 구사가 원활히 된다고 검증되는 동료 대학원생들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강좌를 열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IV. 현지조사 및 진로계획

설문 응답자 중 2명을 제외한 26명이 동남아 현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님 해외 파견에 따른 유학 등으로 현지에서 학교를 마친 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제 아래, 학사과정부터 석사, 박사예 이르는 교육 과정 아래서 각각 현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표 6> 동남아를 처음 접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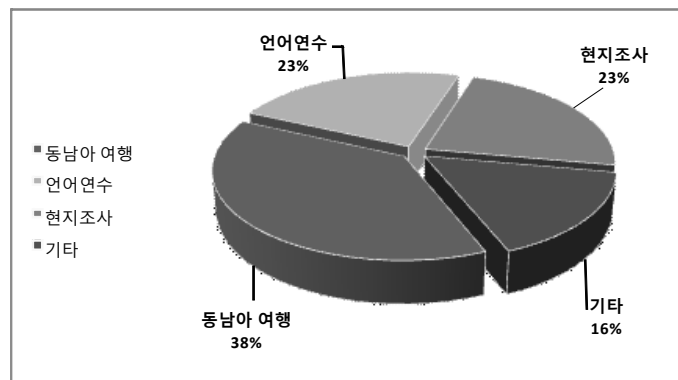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57%가 동남아를 접하게 되고 그 경험들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대학원생들이 지역연구에 발을 들여 놓는 계기로 자리한다. 반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동남아를 접하는 경우는 기존의 관심을 동남아 지역연구에 적용시키거나 학습 과정에서 동남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였다.

동남아를 접하는 계기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특히 학부 때에는 여행이나, 언어연수의 경우가 많고 지역연구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후는 주로 현지조사로 동남아를 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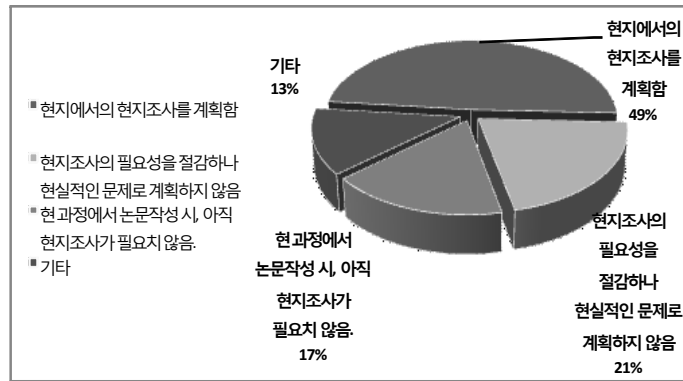
게 된다. <표 7>의 기타 내용으로는 ‘회사출장’이나 ‘방송, 취재’ 등과 같은 경우와 수업의 연장선 의미로 교수님과 함께 동남아 현지를 접한 경우들이 존재했다. 체류 기간과 동남아 현지 경험의 횟수의 면에서 보면 동남아 여행 혹은 단기적인 현지조사 수행 등의 이유로 58%의 응답자들이 6개월 미만의 체류 기간을 보고하였다. 현지체류 기간 6개월 이상(1년 이상 포함)이 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인 현지 ‘언어연수’와 중·장기 ‘현지조사’ 및 ‘현지유학’이 이유임을 알 수 있다.

<표 7> 동남아 현지 경험 계기



설문과 심층면접에 응한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현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직 경험이 없거나 체류 기간과 횟수 면에서 많지는 않더라도 동남아 현지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이러한 '친화성'은 단순히 동남아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넘어 '학(學)적인 체계로 지역연구를 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현지조사'라는 방법론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단순히 국내의 교육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 더 나아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동남아 교육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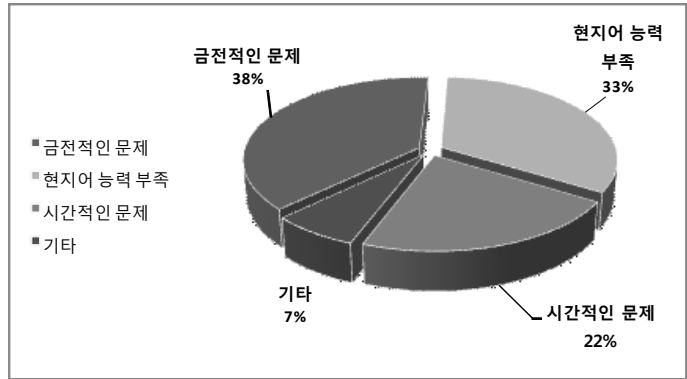
<표 8> 동남아 현지조사 의향



<표 8>을 보면 현지조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현지조사를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대학원생은 전체의 49%(특히,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57%)였고, 현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달했다. 현 과정에서의 논문 작성 시에는 현지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17%와 현지에서 이미 유학 중이거나, 박사 취득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대학원생을 제외한 70%의 대학원생들은 현지 조사를 자신의 논문이나 연구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부터는, 동남아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한 대학원생들이 정작 현지 조사를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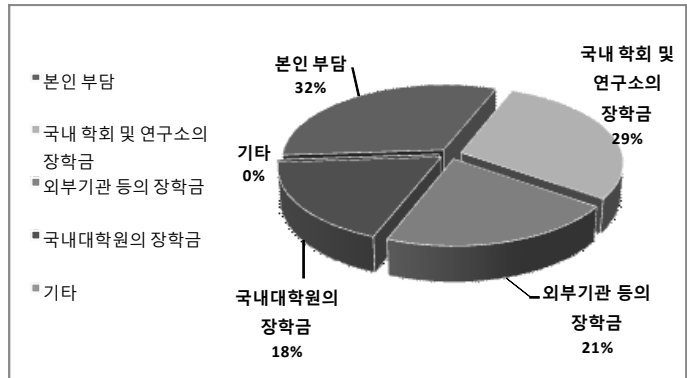
<표 9>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현지조사를 계획·진행하는 가운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에 있었다.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준비를 위한 일정기간의 준비 시간 소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22%로, 현지어 능력 부족의 문제를 토로한 대학원생이 33%나 되었다.

<표 9> 현지 조사 시, 현실적인 어려움



우리는 현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 특히 재정조달 방법을 어떻게 찾고, 실질적으로 설문응답자 본인이 희망하는 해결방법에 대한 추가 질문을 했다.

<표 10> 현지 조사 진행시, 재정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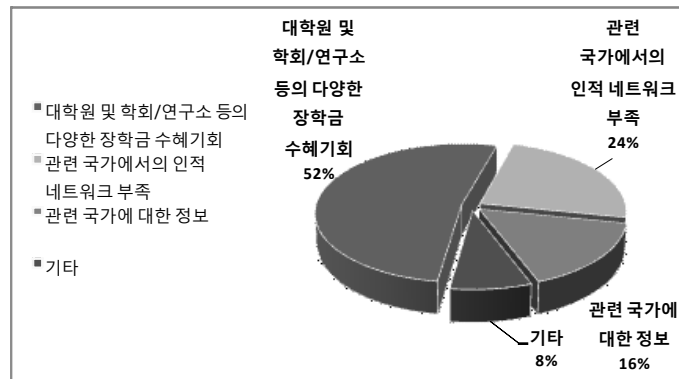


<표 10>에서 재정조달 방법으로 본인부담 32%, 학회 및 연구소의 지원금 29%, 동남아 지역연구를 지원하는 외부기관의 장학금 21%, 소속 대학원의 지원금 18%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이미 현지

조사를 수행한 대학원생과 앞으로의 현지조사 수행 시, 조달방법에 대한 희망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현실적인 조달방법과 희망사항적인 조달방법에 대한 조사가 분리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보완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50%가 넘는 대학원생들이 현지조사 진행 시, 대학원 및 학회/연구소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에 대해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현지조사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지 조사 국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부족’과 ‘관련 국가에 대한 정보 부족’ 역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 문제의 경우, 현지조사 선행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종의 ‘가이드북’을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이후 현지조사 후행자들에게 좋은 사전조사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표 11> 현지 조사 진행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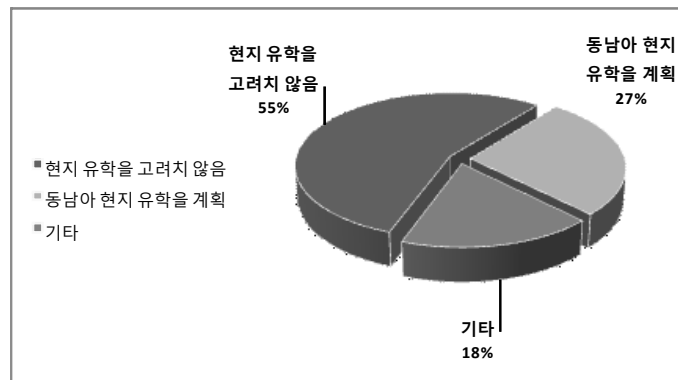


기타의 응답으로 현지 조사 과정에서 현지어 습득 능력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듯이 ‘현지어 문제’가 다시 언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어 능력 습득기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는 대학원생이 다수였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

동남아 현지유학에 관한 계획여부에 대한 설문응답은 석사과정(석사취득 포함)과 박사과정(박사수료 포함)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설문에 응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대부분은 이미 동남아가 아닌 타 국가에서 유학 중이기 때문이다.

<표 12> 동남아 현지 유학 의향



설문에 응한 11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가운데, 현재 동남아 현지에서 유학중인 1명을 제외한 10명은 동남아 현지 유학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동남아가 아닌 이른바 영미권을 유학 대상국으로 고려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수집되었다.

현지어로 대학원 수준의 수업을 수강할 정도의 언어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원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지유학 및 조사과정에서의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적 지원을 쉽게 받을 여건이 되고 대학원 교육과정이 더 체계적인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9일 이메일 인터뷰)

동남아 현지에서의 유학보다 장기간 Field Work를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동남아 현지의 경우, 사회과학(사회학)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영미권으로 유학 오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23일 이메일 인터뷰)

동남아 현지 유학을 하는 것 보단, 수업청강과 세미나, 공동연구 참여 등으로 현지유학의 장점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9월 23일 이메일 인터뷰)

석사과정 대학원생 역시 비슷한 의견으로 조사되었는데, 17명 가운데 단지 5명만이 동남아 현지에서의 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동남아 현지의 범위가 싱가포르 국립대가 위치한 싱가포르까지 포함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의 동남아 전공지역에서의 유학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문결과에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⁴⁾

전공 특성상 한국 학계에서 동남아 현지유학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남아 현지유학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07년 9월 23일 이메일 인터뷰)

현재까지의 한국 상황에서는 영미권 학위취득자 보다 동남아 지역 학위취득자의 구직활동이 좀 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2007년 7월 22일 집단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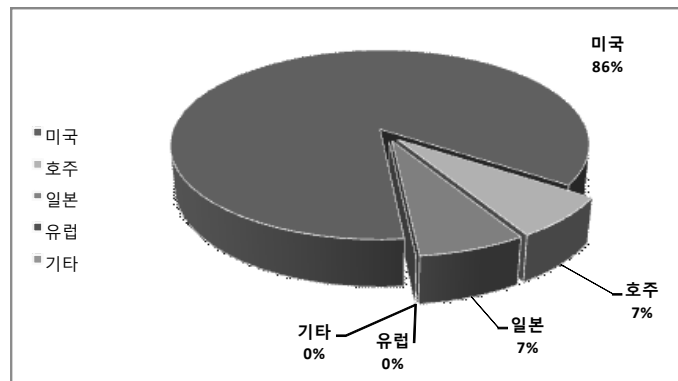
전공 특성 상 동남아 현지 유학보다 다른 국가 유학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9월 19일 이메일 인터뷰)

그렇다면 동남아 지역연구를 학습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4) 설문조사지에서 의미하는 ‘동남아 현지유학’을 영미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베트남, 태국, 말레이-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현지 대학 혹은 현지 대학원에서의 유학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유학 선호국은 어디인가 하는 설문에 아래 <표 1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원생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는 일반분과 학계의 경우, 미국에서의 석·박사 학위가 선호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3> 동남아 외 유학 선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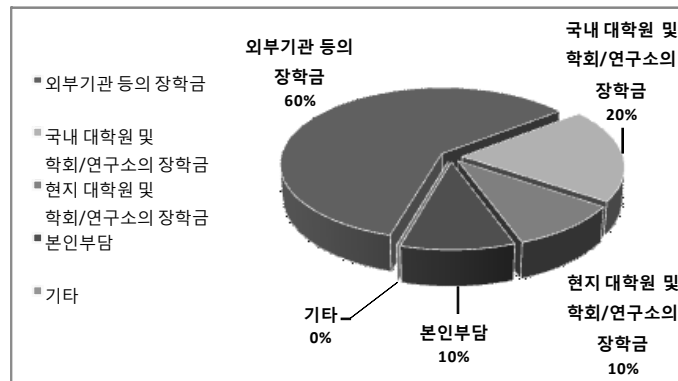


유학계획 및 유학 과정 시, 현지 유학이건 영미권 유학이건 유학 제반 생활을 위한 금전적인 문제 해결이 50% 이상의 의견으로 대학원생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설문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하는 희망 사항을 묻는 의미와 현재 유학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금전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복수응답이 가능토록 하여 이 설문결과를 통해 실제로 어떠한 기관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재정지원을 받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는 한계는 있겠으나, 적어도 대학원생들이 어떤 기관의 도움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희망사항 내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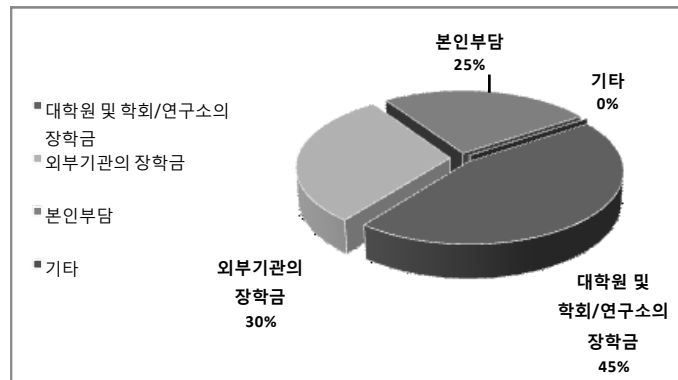
동남아 현지 유학 계획 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 기대

가 60%로 가장 컸다(<표 14> 볼 것). 이어, 설문응답자 20%가 소속 대학원 및 학회/연구소로부터의 장학금 수혜를 통한 재정문제 해결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현지 유학 시, 자금 조달 방법



<표 15> 동남아 외 국가에서의 유학 시, 자금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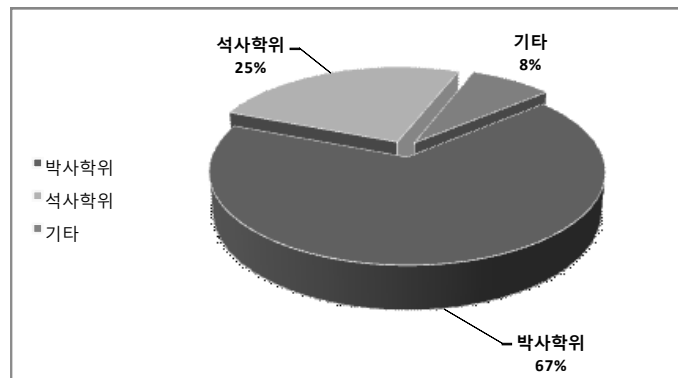


동남아 외 국가, 이른바 영미권 유학의 경우 20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9명(45%)이 소속 대학원 및 학회/연구소의 장학금 지원을 가

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5> 볼 것).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및 학회/연구소의 장학금 수혜를 통해 유학을 하는지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외부기관과 소속 대학원 및 학회/연구소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을 통해 유학을 꿈꾸는 대학원생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들 기관의 동남아 지역연구 대학원생 육성을 위한 정책 내지 방안수립에 비중 있는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 지역연구 분야와 비교할 때, ‘소수’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답한 응답자의 67%가 박사학위 취득까지를 목표로 현재 동남아 지역연구에 임하고 있었다(<표 16> 볼 것). 이를 지역연구 관련 학위 취득 후,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의 문제와 연관하여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특히 석사 과정 대학원생들—는 자신을 ‘지역연구자’보다는 지역연구와 연관된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대학원생이 적지 않았다.

<표 16> 동남아 지역연구 학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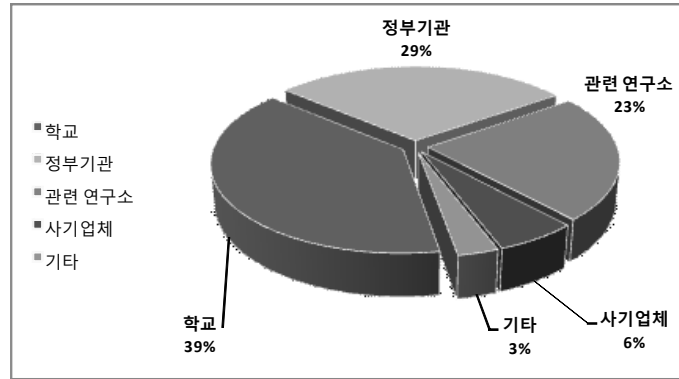


자신은 ‘석사취득’까지만 이라고 답한 대학원생은 그 이유로 자신의 학문적 능력 부족이나 관심 영역이 달라졌다는 점을 든 학생도 있었던 반면, 지역연구에 대한 열의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특히 재정적인 문제와 진로 불확실—로 인해 박사과정 진학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연구를 차후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대학원생도 다수였음은 동남아 지역연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학습을 한 후 그 지식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로 취업하지는 목적으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박사과정까지 진학한다는 것은 일터를 '학교'로 고려한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박사학위를 선택 고려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게 된 이후 기회가 된다면 박사과정에 진학할 의사는 있습니다. (2007년 10월 13일 심층면접)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연구 관련학위 취득 후 68%의 응답자가 진로의 방향을 학교(39%)나 정부기관(29%)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대다수가 학교를 일터로 삼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반면,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정부기관이나 관련 연구소, 사기업체로 자신의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사 과정을 마친 대학원생 중에서도 동남아와 관련된 연구 기관이나 정부 단체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는 의사를 보인 ‘석사 수료생’도 다수 존재했다.

<표 17> 향후 진로의 방향



V. 나오며: 대학원생이 바라는 이상적인 동남아교육환경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원생들의 여러 목소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생이 입을 모아 토로하는 동남아 수업에 대한 아쉬움은 학과 내 개설 과목의 수가 적다는 점과 수업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1990년대 연구의 지역적 다변화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 내 개별 국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특정 주제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그나마도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동남아 연구의 경향은 대학원의 수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수업을 맡아야 하는 동남아 지역전문가 중에서 언어학자와 정치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문학의 전공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동남아 지역연구 수업의 제한된 주제와 선택의 폭은 특히 논문작성 과정이나 현지조사 실시를 위해 사전 자료조사를 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관심지역과 연구주제에 맞는 수업을 지역대학원이나 교환학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 대학원의 수업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 동남아 관련 대학원의 학제 시스템 안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보다 활발한 학제간, 지역연구와 대학을 넘어선 네트워크, 타 학교 학생이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 연구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 연구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을 뒷받침해 줄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어, 일본어 등과 달리 대중적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아 지역 언어의 경우,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설문조사에도 국내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동남아 현지어를 습득한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대학원생들은 개인교습과, 스터디 그룹으로 보충하고 있긴 했지만, 재정적인 면이나 학교 수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한 언어 교실이나 대학원생끼리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들이 필요하고, ‘현지 언어’의 문제를 대학원생 개인에게 전담시키기보다는 교육기관 내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셋째, 현지조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컸다. 연구과정에서 현지관련성이 증가할수록, 보다 심층적인 현지조사가 동반될수록, 수준 높은 연구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원생들이 현지조사를 계획·진행하는 가운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부담의 문제였다. 특히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현지조사를 논문 계획 단계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조사의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의 계획과 준비, 실행의 과정에서 학생 혼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기관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여러 지원들도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었다.

넷째, 대학원 수업의 여러 제반조건과 외부지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국 지역연구 전공자 혹은 일본 지역연구 전공자에 비해 수적으로 ‘소수’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학교 차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체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지원뿐 아니라 물론 동남아지역 연구와 연계된 학회나 연구소 및 외부기관의 상대적 지원에도 다른 지역연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대학원생들 보고한다. 동남아 각 국가 또는 아세안과 협력하여 위탁교육 또는 교환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SEASREP 등의 움직임도 더욱 확대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학과 내 개설과목수의 부족과 제한된 주제의 수업내용에 대한 아쉬움 및 현지 언어 습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학습의 장 개설 요구는 앞에서 언급된 “교환학점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간 보다 적극적인 교환학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최소한 개설과목수 부족과 수업주제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대학원생들이 지역연구 학습과정 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제간, 지역연구와 대학을 넘어선 네트워크를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를 학습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협력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 연구자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 위에 자기 나름의 노력들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거기에, 그들이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부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동남아 교육을 받고, 그 후 각자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각각의 변곡점 위에서 ‘낭만의 아마추어리즘’이 ‘전문적 지역연구자’로, ‘유기적 지식인’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지역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자리 할 수 있기 위해서

는 든든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지역 연구자를 탄생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동남아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동남아와 한국의 상호교류에 ‘긍정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잠재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은 결국, 앞으로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그려낼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다루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대학원생들의 ‘철없는 푸념’이 ‘긍정적 피드백’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동남아시아 지역관련 대학원 교육 환경, 재정적·제도적 지원, 지역연구·언어 관련 학제간 교육, 지역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참고문헌

- 김경일.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 김국진. 1991. "동남아세아 지역연구."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방안연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 이철원 외. 1995.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 연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 조흥국·오명석·박사명. 1998. "제3장 동남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두승. 2005.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2007. 11. 16 투고; 2008. 7. 20 수정; 2008. 8. 15 게재확정)

Abstract

Listening to a Voice: The 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outheast Asian studies experienced
and evaluated by graduate students

Lee Chang Kyu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ung Yoo Kyung

(Graduate stud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and evaluate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It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feasible way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review all the issues relating to the graduate programs of Southeast Asian studies on the basis of the opinion of graduate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evaluative approaches to academic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graduate programs and surveyed the opinions of the KISEAS study member. Our research itself cannot be a resolution to the future of the graduate programs of the Southeast Asian studies. Rather, its humble concern is to mak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software and the hardware of the graduate programs of the Southeast Asian studies.

The major findings on how to improve the graduate programs are as follows. The programs have to be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broad interdisciplinary training in language and area studies. Also, they should give them a chance to take courses in a variety of disciplines. When it comes to Southeast Asian studies, considerable emphasis must be placed on the field research in Southeast Asia. All graduate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and assisted in their efforts to conduct field researches to learn a lot more than just knowledge. Last but not least, consistent financial, institutional support and eagerness of teachers in education are vital in developing new contents and methods for graduate programs of the Southeast Asian studies.

Key Words :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Graduate programs, Interdisciplinary training in language and area studies, Field research, Financial, Institutional support.